

中原文化「圈」研究的

實際와 展望

鄭 永 鎬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 있어서 文明的 發祥이 江河연변이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일찍이 개화된 大同江 유역의 古代文化를 비롯하여 洛東江, 兄山江 유역의 신라문화와 錦江 유역의 백제문화 등이 그 좋은 예인 것이다. 漢江에 있어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유역 일대에 훌륭한 문화가 일찍부터 生成되었던 것이나 上記한 王都 중심의 江河 유역과 같이 크게 주목되어 오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곳 漢江 유역은 支石墓群을 비롯하여 많은 선사유적이 있는 곳이고 더우기 역사시대에 이르러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을 때 동맹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신라가 竹嶺과 鳥嶺을 넘어 北進하였을 때에도 또한 大進軍路로 택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千里水路 漢江변에는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이다.

漢江 유역에서도 특히 中·上流가 되는 中原郡은 일찍이 고구려가 國原城을 설치하였던 곳이고 이후 이곳을 점령한 신라는 中原京을 설치하여 이곳 일대의 治所로 삼았던 것이니 실로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이렇듯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한 주목은 이제까지 그리 없었던 것이다.

일제 침략기에 日人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水路를 한껏 이용할 수 있었던 바로 이 漢江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문화의 유산을 탈취하여 江路를 따라 운반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곧 水路이용도 주의를 끄는 일이나 이보다는 수많은 문화의 유산이 이 지역 일대에 집결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一九〇七年 경기도 楊平郡 龍門面 龍門山 上元寺에서 巨大한 梵鍾을 강탈해간 사실②을 비롯하여 漢江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水路를 이용하여 많은 造形美術品을 不法 반출해 갔으니 몇가지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楊平龍門山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一九一七)

原城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一九一二)

原城興法寺真空大師塔(一九三一)

原城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一九一二)

中原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一九一三)

中原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一九一三)

堤原岳山月光寺圓禪師大寶禪光塔碑

堤原寒水面驛里寺址石塔

丹陽邑內上坊里寺址石塔

이 가운데에는 日本으로 약탈해간 뒤 영영 그 자취를 감춘 文化財도 있고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과 같이 일본 大阪까지 옮겨졌다가 다시 반환되어 서울 경복궁에 놓이게 된 遺物도 있다. ③

日人들의 中原지구 출입은 이와 같이 文化財 불법반출에 血眼이 된 때문이었으며 결코 이곳 일대의 조사연구는 전혀 眼中에도 없었던 것이다.

필자가 中原지구를 비롯한 충청북도 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착수한 것은 一九五八年度에 中原郡 上莨面 彌勒里의 石窟寺院址를 중심한 여러

불적이었다. ④ 이후 一九六〇년 考古美術同人會(지금의 韓國美術史學會)가 창립되어 새로운 유적·유물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이곳 미륵리의 불교유적은 더욱 주목되어 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 慶州의 토함산 석굴암의 해체복원에 따르는 학술조사를 총지휘하던 黃壽永박사는 林泉 申榮勳諸氏와 함께 이곳 石窟寺院址를 조사하여 석굴암 복원 검토에 자료로 삼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中原지구와 충청북도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一九六七년도 단국대학교에 박물관이 개설되면서 부터였다. 이때 충북지구 조사 一〇개년 계획을 세워 一九六七년 八月 蘇臺面 五良洞의 靑龍寺址 조사와 괴산지구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一개군씩을 답사하였는 바 一九七五년에는 可金面 塔坪里 七層石塔 주변에서 고구려 제릉의 연화문 수막새를 몇점 수집할 수도 있었다. 충북지구의 대체적인 파악 이후 一九七七年도 부터는 二차적으로 또다시 충북지구 조사 一〇개년 계획을 세워 鎭川지구 조사부터 착수하였는 바 一九七八년 一월에는 丹陽지구 답사에서 「新羅赤城碑」를 발견 조사하였고 一二월에는 中原지구 답사에서 可金面 鳳凰里 鎭山의 磨崖半跏思惟像을 중심한 磨崖佛·菩薩群을 발견 조사하였으며 一九七九年 四월에는 中原郡 可金面 龍田里 立石부락 어귀에서 고구려의 石碑를 발견 조사함으로써 中原지구 문화유적 조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조사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당시 각 방면의 전문학자들을 초빙하여 學術會議를 열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집성 보고한 바 있다.

「丹陽新羅赤城碑特輯」史學志 第二輯(檀國大學校 史學會刊 一九七八、一一)

「中原高句麗碑特輯」史學志 第一三輯(檀國大學校 史學會刊 一九七九、一一)

「中原鳳凰里磨崖半跏像과 佛·菩薩群」考古美術 一四六·一四七(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八〇、八)

한편 이 지역 文化遺蹟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中原郡에서는 上毛面 彌勒里寺址의 淨化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기초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三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그 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 一차 발굴조사(一九七七年도) .. 淸州大學校博物館
- 二차 발굴조사(一九七八년도) .. 淸州大學校博物館
- 三차 발굴조사(一九八二년도)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이상 세차례의 발굴조사로 조사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나 그래도 앞으로의 보나 완전한 발굴조사와 주변정화 계획의 단서는 크게 잡혔던 것이다.

中原郡, 나아가 주변일대 지역의 유적·유물 조사에 크게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忠州면 건설계획에 따르는 「수몰지구조사」였다. 수몰되기 전에 모은 유적을 발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地表 조사가先行되어야 함으로 시행중인 충청북도에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여러대학과 합동하여 충주, 증원, 제원, 단양 등지의 수몰지구에 대한 지표조사를 二차례(一九七九年, 一九八〇년) 실시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다. 이 조사는 고고분조사반, 불적조사반, 고건축조사반, 민속조사반, 역사조사반, 천연기념물조사반의 六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발굴조사지역이 선정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자료를 기초로하여 「忠州면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一〇여개 대학 박물관 분담으로 一九八二년, 一九八三년의 二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는 바 이의 결과는 앞으로 종합적인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리라 믿는다.

一九八二년도에는 中原郡에서 「中原文化圈基礎調査」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실시하여 「中原文化圈遺蹟分布圖」의 큼직한 부도와 그索引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상북도 안동과 상주, 경기도 利川과 여주, 청원과 보은 진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까지를 수록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충북지방의 文化財 同好人들도 이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충주에서는 一九七八년 「藥城同好會」가 창립되어 특히 충주시 중원군 일대의 문화 유적들을 살살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을 실어 一九七九年 二월부터 「藥城文化」란 會誌를 창간, 一九八二年 末까지 第四호를 발간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同好인들이 모여 一九七四年 一〇월에 「西原學會」를 창립하고 청주 청원일대는 물론 중원 제원 단양일대의 한강유역까지를 포함한 중부 일원을 조사하여 그 내용으로서 一九八一年 二월에 「西原學報」를 창간, 一九八二年 末까지 第三輯을 발간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연구로는 「고구려 國原城의 연구」(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張俊植)가 있어 國原城 治址의 추정이 압축되고 있으며 可金面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한 주목을 더욱 새롭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金豐植, 李在俊 共著(一九七九, 一) 「忠北의 기와」에서 특히 忠州市 中原郡 일대와 제원군, 단양군 지역에서 出土 조사된 瓦當들은 中原文化의 성격과 特質을 연구하는데 주목되는 자료라 하겠다.

한편 國原城 治址의 推定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볼때 地質이 현재의 忠州市內 일대는 침식면위에 모래질층이 깔려있어 비옥하지 못하며 오히려 可金面 塔坪里 일대는 퇴적층위에 미립물질의 고운 흙이 덮여있어서 예로부터 비옥한 토질이 형성되어 있어 이곳 일대에 일찍부터 인류가 서식하였을 것이므로 國原城설치 중심이 어느곳보다도 이곳 塔坪里 일대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일찍부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특히 美術史上 여러가지 사실을 살펴보아 이곳 塔坪里를 國原城 治址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에서는 文化財研究所 主管으로 「中原文化圈」(가칭) 유적 정밀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여 각각 그 조사보고서를 刊行하였다.

一九八二년도

- 忠州市, 中原郡地區……檀國大學校 博物館
- 堤川市, 堤原郡地區……忠北大學校 博物館

- 丹陽郡地區……清州大學校 博物館
- 九八三년도

- 陰城郡, 鎭川郡地區……檀國大學校 博物館
- 清原郡地區……忠北大學校 博物館
- 清州市, 槐山郡地區……清州大學校 博物館

이 조사는 앞으로는 年次的으로 실시하여 中原郡地區를 중심한 주변 여러 郡域의 文化를 정밀히 검토함으로써 그 文化의 중심을 이루는 「中原文化의 性格」을 보다 확실하게 밝히게 될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中原文化圈」 설정에 따르는 조사 연구의 첩경이 아닌가 한다.

이상 중원지구를 중심한 문화유적 조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 지역에서 발전 발달되는 새로운 자료는 그 수를 더 해가고 있다. 이것은 중원문화의 성격을 究明하는 훌륭한 자료들이 된다.

「文化圈」이란 어떠한 지역이던지 그 지역을 중심한 「文化메두리」 즉 어떤 공동된 특징을 가지는 文化의 공간적인 지역을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 中原郡을 중심한 여러 文化의 양상이 「中原文化圈」형성에足하겠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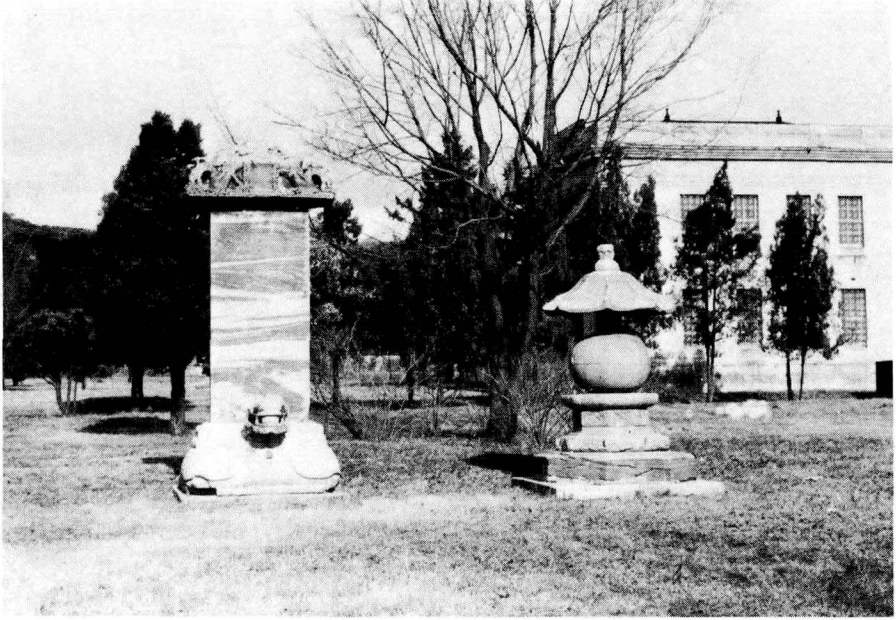
오늘의 학술회의에서는 중원문화권 설정에 앞서 중원지구의 文化를 고고학적인 측면, 역사적인 배경, 미술사적인 측면, 건축 조형적인 특성 등의 여러면에서 고찰해 보고 있다. 이 결과 문화권 설정의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바, 설사 이 자리에서 설정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한 단서는 잡히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보다 확실성있는 설정의 기회는 각 분야별로 더욱 깊고도 넓은 조사연구가 진행될 때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술회의의 기회가 보다 분과적이고 횡수를 거듭한 뒤에는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결론이 맺어지리라 믿는다.

〈註〉

① 三國史記 卷第三十五 雜志第四 地理二

「中原京 本高句麗國原城 新羅平之 眞興王置小京 文武王時築城 周二千五百



中原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과 塔碑 (서울景福宮內에 있음)

九十二步 景德王改爲中原京 今忠州」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四 忠川牧 建治沿革

「本高句麗國原城(一云未乙省 一云甑長城) 新羅取之 眞興王置小京 徒貴戚子弟及六部豪民以實之 景德王改中原京 高麗太祖二十三年 改今名 成宗二年置牧 十四年 置節度使 號昌化軍 隸中原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 安爲八牧之一 高宗四十一年 陞爲國原京 後還爲牧 本朝因之 世宗三十一年 以觀察使兼判牧使 尋罷之 世祖朝 置鎮。

鎮管 郡三(清風 丹陽 槐山)

縣四(延豐 陰城 永春 堤川)

官員 牧使 判官 教授 各一人。

위에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은 三國史記의 內容一部를 再錄한 것으로 특히 三國期와 統一新羅時代의 記錄은 그러하다. 위의 기록에서 보면 三國期 高句麗와 新羅의 싸움, 高句麗의 國原城 설치, 이에 이어 新羅의 小京 설치,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는 中原京을 설치한 일등에서 이 고장의 注目이 새로워지며 이후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國原京의 명칭이 보이고 있음은 三國期 國原城 설치 이래 歷史의 要地였음을 짐작케 한다.

② 黃壽永·「傳龍門山上元寺銅鐘存疑」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刊行委員會刊, 一九六五年 五月) 참조. 筆者는 一九六二年 二月初旬에 現地를 찾았을 때 現地 住民들로부터 日人들의 강탈사실을 듣고 古老 三人을 서울로 초청하여 日人들이 現 曹溪寺 銅鐘을 上元寺의 銅鐘이라 속하고 바꾸어 달았으며 眞品 上元寺鐘은 日本으로 不法 搬出해간 그들의 만행사실이 분명함을 알게 되었다.

③ 이 浮屠塔은 본래 中原郡의 積경인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 建립되어 있었던 것을 韓日合邦 직후 日人들이 日本 大阪까지 不法 搬出하였다가 返還하여 現位置에 建립해 놓았었다. 그런데 이 塔은 六·二五 動亂時 砲彈에 맞아 크게 파손되었던 것을 一九五七年에 現 상태로 補修한 것으로 이렇듯 그동안 受難을 겪어왔다.

④ 당시의 이곳은 槐山郡 上毛面이었으나 본래는 中原郡城에 가까운 곳이다.